

아파트 실내공간의 차별화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Apartment Interior Space Planning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부교수 오혜경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석사과정 졸업 신지원

Dept. of Housing, Family and Child Studies,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 : Oh, Hye-Kyung

Dept. of Housing, Family and Child Studies, Kyung Hee Univ.

Master of Science : Shin, Jee-Won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의 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the tendency of preferences, and the needs of the future residents from the current diversified apartment, and to plan the desirable interior space for the near future apar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ample was taken from 155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χ^2 -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jor findings in this surve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ajority people wanted diversified interior space.
2. The first majority(23.9%) wanted to choose their own interior image. The second majority(17.8%) wanted to have an inner garden and the third majority(17.2%) wanted to have two story apartment.
3. 35.7% of the respondents surveyed wanted to have a home-office space.

Finally, various diversified apartment plans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었으며,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아파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온 지 30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지계획이나 각 주호의 평면에 있어 큰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실내이미지에 있어서도 근래에 들어 부분적인 선택 옵션이 주어지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으로 매우 획일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질적 측면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획일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대한주택공사, 1989/오봉석, 1992/안은경, 1993)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성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의 아파트는 거주자의 개별적인 요구와 사용상의 편의, 주거이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조, 변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개조나 변경은 그들의 주거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며(김영주, 1992) 대량생산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실내공간의 획일성에 대한 차별화 요구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도 이제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생산' 아파트 공급으로 그 정책을 바꾸어가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7).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실시되었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검토는 보다 나은 미래의 아파트 계획에 필수적일 것이다. 더욱이 근미래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차별화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거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근미래 거주자의 인식 및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아파트 실내공간 차별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된 차별화 아파트의 공간계획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근미래 거주자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한다.

둘째, 차별화 계획특성에 대한 근미래 거주자의 선호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한다.

넷째,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차별화 아파트 평면계획의 대안을 제시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작성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신문, 잡지,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특히 현재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 아파트의 전략 중 실내공간의 차별화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한 차별화 특성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경남신문)에 게재된 차별화 아파트에 관한 총 76건의 관련기사 중 각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최근에 분양하였거나 분양예정인 계획안을 분석하여 셋 이상의 건설회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차별화의 안을 그 동향으로 간주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평면설계의 차별화와 실내이미지의 차별화로 나누어졌으며 평면설계의 차별화는 주호단위의 차별화로 3세대 동거형 아파트가, 공간구성의 차별화로 단독마당이 있는 아파트와 주방남향형 아파

트가, 평면형태의 차별화로 복층형 아파트와 라운드 공간이 도입된 아파트, 자유평면형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한편 실내이미지의 차별화로는 한국형, 내추럴형, 캐주얼형, 엘레강스형, 모던형, 클래식형이 조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생활과학부에 재학중인 여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활과학부 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인간과 생활환경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어 타학부의 학생들보다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문에 대한 응답이 충실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특히 여자대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주택 선정에 있어서 주된 의견을 반영할 근미래의 주부라는 판단에서였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2차의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후 주거학 및 실내디자인 전공 교수의 검토를 받아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2차 예비조사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70부를 배포하여 그 중 응답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155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누적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검증, ANOVA와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거주지, 학력, 연령의 분포가 동일하다. 따라서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전공, 현재의 주택 형태, 미래에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있어서 전공은 주거환경이 31.6%, 아동이 27.1%, 식품영양이 24.5%, 의상이 13.5%, 기타 학생들이 32%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7.1%를 차지하였고 다세대 주택이 17.4%, 빌라 6.5%, 연립주택 3.2% 등이었다. 미래에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43.2%, 아파트가 27.1%, 빌라가 26.5%로 나타났다. 이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희망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독주택이 현재 전체의 50% 미만이고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단독주택의 이점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아파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인식 및 견해

차별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48.4%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으며 51.6%의 학생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로써 그 인식의 정도는 거의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견해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8.7%였으며,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5.8%로서 차별화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별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내공간에서 각 요소를 얼마나 중요시 하겠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실내의 공간 구성 및 평면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77.4%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중요하다는 18.7%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인 실내이미지는 약간 중요하다는 경우가 50.3%,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39.4%였는데 두 요소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며 차별화 아파트가 이들 요소들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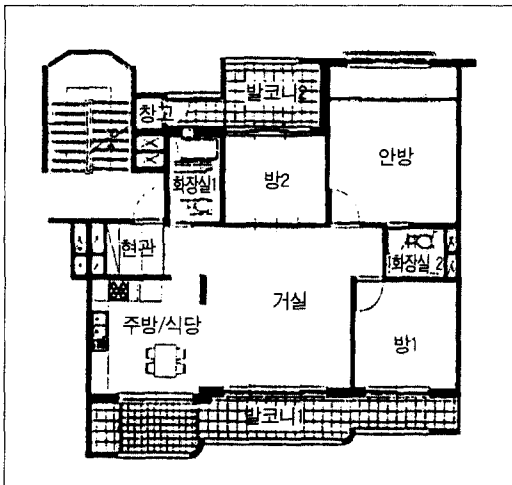
또한 10년 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30-

마당이 다른 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단점은 응답자 155명 중 60명인 38.7%가 응답을 하였는데 단독마당이 너무 작다고 말한 경우가 응답자의 18.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마당과 발코니를 연결하여 넓게 구성하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단독마당을 현관에 근접한 곳에 배치하여 단독마당을 좀 더 부각시키고 넓은 공간의 전이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2) 주방 남향형 아파트

아파트 실내공간의 주방 남향 위치에 대한 선호 정도는 약간 선호한다는 응답이 48.4%, 매우 선호한다는 경우가 23.9%,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12.9%, 모르겠다는 경우가 12.3%의 분포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장점은 거실과 주방공간이 근접하여 배치된 점으로 39.4%가 응답하였고, 주방공간의 전망이 좋은 점에 대하여 27.1%가 선호하였다. 단점으로는 155명의 응답자 중 70명이 응답하여 45.1%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그 중 34.3%의 학생이 거실의 이미지 문제와 주방의 소음문제,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분리벽이나 문, 파티션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림 2> 주방 남향형 아파트의 사례평면

3) 복층형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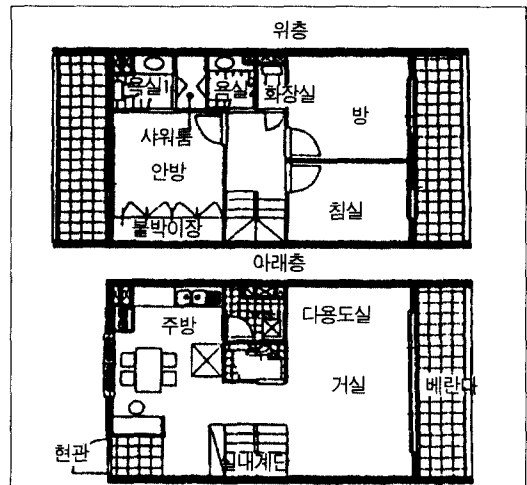
한 가구가 2층을 사용하는 평면의 형태를 가진 복층형 아파트에 대한 응답은 약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4%로 나타났고 매우 선호한다는 의견이 30.3%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비율이 높았으나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점은 61.2%가 공적인 공간은 아래층에, 사적인 공간은 위층에 분리한 점이라고 답하였고, 23.9%가 2개층으로 분리된 형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나치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분리한 점이 나쁘다는 지적이 많아 공간의 분리를 선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단점은 총 응답자 155명 중 67명이 응답하여 43.2%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 아래층에도 침실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0.9%, 위층에 침실만을 배치하기보다는 공동공간인 거실이나 간이주방을 원하는 경우도 11.9%, 평수가 적어 복층형이 답답해 보인다는 지적도 10.4%가 제시하였다.

4) 라운드 공간이 도입된 아파트

아파트 실내공간의 라운드 공간 도입에 대해 약간 선호한다가 41.1%, 매우 선호한다, 모르겠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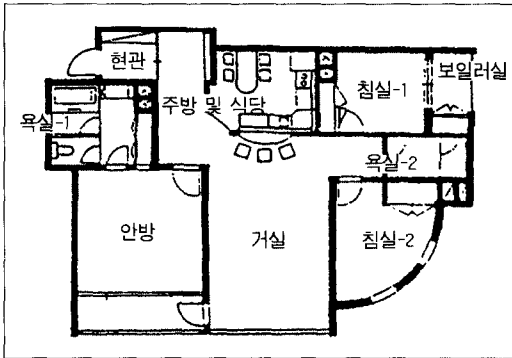


<그림 3> 복층형 아파트의 사례평면

21.3%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2.9%를 나타냈다.

장점은 정남향을 라운드로 처리하여 조망이 좋은 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38.1%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단조롭지 않은 형태에 대하여 29.7%의 응답자가 지지하였다.

단점으로는 응답자 155명 중 48명이 응답하여 30.9%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주방이 현관 앞에 위치한 점에 대하여 좋지 않다는 의견이 22.9%, 원형 방의 가구배치 어려움에 대하여 12.5%, 거실의 발코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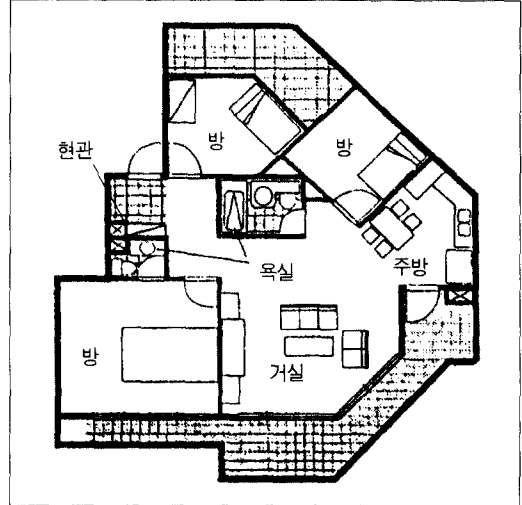
〈그림 4〉 라운드 공간이 도입된 아파트의 사례평면

5) 자유평면형 아파트

아파트 실내공간의 자유평면형 공간 도입에 대한 선호정도는 약간 선호한다가 의견이 31.6%로 나타났고 매우 선호한다와 모르겠다가 같은 25.2%였으며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6.8%의 비율로 나타났다.

장점은 다각형으로 처리된 형태라는 답이 가장 많아 43.2%의 비율을 나타냈고, 주방공간이 꺾여져 배치된 점을 18.1%의 학생이 선호하였다.

단점으로는 155명의 응답자 중 51명인 32.9%가 응답을 하였는데, 욕실의 위치에 대하여 27.5%의 학생들이 욕실의 위치가 튀어나와 나쁘다는 의견과 욕실과 방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각형의 방이 불편할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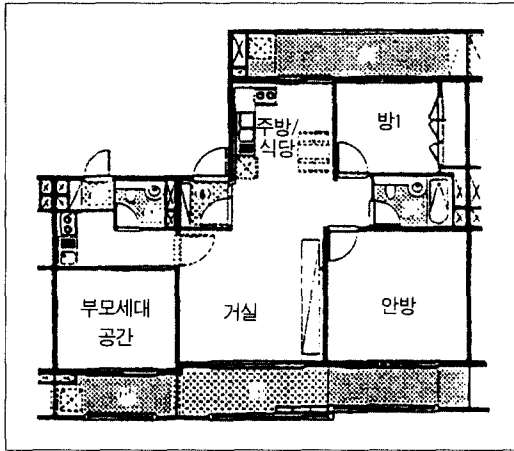
〈그림 5〉 자유평면형 아파트의 사례평면

말한 경우가 21.6%, 지나친 각으로 산만해 보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21.6%, 주방이 복잡하고 좁다는 의견을 7.8%가 제시하였다.

6) 3세대 동거형 아파트

3세대 동거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정도는 약간 선호한다는 의견이 40.0%, 매우 선호한다는 의견이 25.8%,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5%,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15.5%,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로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장점으로는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 공간의 출입현관이 따로 있는 점이 36.8%,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가 실내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는 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4%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총 응답자 155명 중 43명이 응답하여 27.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연결되는 부분에 거실 등의 공유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5.6%이었고 특히 공유공간은 넓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출입현관을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실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0.9%, 임대거실(부모공간)쪽에도 거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였다.



〈그림 6〉 3세대 동거형 아파트의 사례평면

7)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

전체의 실내마감계획을 몇가지 유형으로 건설회사에서 준비해 놓고 수요자가 선택한 유형으로 시공해주는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에 대한 의견은 매우 선호한다는 의견이 65.2%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약간 선호한다는 의견은 30.3%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떠한 이미지로 실내를 꾸미고 싶은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더니 현재에는 모던형이 38.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캐주얼형이 28.4%, 내추럴형이 14.8%의 선호경향을 나타냈다. 10년 후에는 내추럴형을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엘레강스형은 21.3%, 클래식형은 19.3%, 한국형은 16.1%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호도를 종합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차별화 계획을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하였는데 1순위로는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마당형 아파트(20.0%)와 복층형 아파트(16.8%)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순위로도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1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층형 아파트(18.1%), 자유평면형 아파트(14.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한 등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누적빈도를 실시한 결과, 실내이미지 선택형, 단독마당형, 복층형, 자유평면형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및 선호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 및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 보았더니 먼저 전공에 따라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인식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환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차별화 아파트를 알고 있는 정도가 더 높았다(표 3).

또한 각각의 특성을 지닌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선호정도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매우 선호한다는 5점을, 약간 선호한다는 4점을, 모르겠다는 3점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2점을, 전혀 선호하지

〈표 2〉 차별화 특성에 대한 선호도의 누적빈도 결과

(N=155)

차별화 특성	분포도	순위	누적빈도(%)
단독마당이 있는 아파트	██████████	2	87(18.7)
주방 남향형 아파트	██████	6	37(7.9)
복층형 아파트	██████████	3	84(18.1)
라운드형 방이 있는 아파트	████████	5	50(10.7)
자유평면형 아파트	██████████	4	76(16.3)
3세대 동거형 아파트	██	7	26(5.6)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	██████████	1	115(24.7)
계			465(100.0)

〈표 3〉 전공에 따른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인식정도
(N=155)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비고
전 공	34(69.39)	15(30.61)	49(100.0)	$\chi^2=12.65^*$ df=1, $p<.05$
비전공	41(38.68)	65(61.32)	106(100.0)	

않는다는 1점을 나타내도록 하여 전공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독마당형과 복층형, 라운드 공간이 도입된 형, 실내이미지 선택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방남향형이나 자유평면형, 3세대 동거형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주방남향형이나 자유평면형, 3세대 동거형의 평면에 대하여 전공학생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 그들의 선호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한편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화 특성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라운드 공간 도입에 대하여 아파트, 빌라와 기타(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고 단독주택과 기타(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아파트

〈표 4〉 전공에 따른 차별화 특성에 대한 선호도
(N=155)

유형	구분	N	Mean	SD	t값
단독마당형	전공	49	4.16	0.94	0.21 (ns)
	비전공	106	4.19	0.95	
주방 남향형	전공	49	4.08	0.83	-2.50*
	비전공	106	3.64	1.08	
복층형	전공	49	3.91	1.03	-0.82 (ns)
	비전공	106	3.76	1.10	
라운드 공간 도입형	전공	49	3.61	1.13	0.26 (ns)
	비전공	106	3.66	1.02	
자유평면형	전공	49	4.20	0.82	-4.87*
	비전공	106	3.35	0.82	
3세대 동거형	전공	49	4.22	0.82	-4.22*
	비전공	106	3.47	1.11	
실내분위기 선택형	전공	49	4.63	0.52	-0.18 (ns)
	비전공	106	4.61	0.62	

$p<.05$

에 사는 학생들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라운드 공간 도입에 대한 선호정도에 있어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미래에 거주하기를 바라는 주택유형과 각각의 차별화 특성에 대한 선호정도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에

〈표 5〉 현재의 주택유형에 따른 차별화 특성에 대한 선호도
(N=155)

유형	구분	Mean	F값	Duncan's
라운드 공간 도입형	아파트·빌라	3.82	3.66*	A
	기타	3.69		B A
	단독주택	3.28		B A B

$p<.05$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집단,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집단, 기타 학생집단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의 1순위와 2순위의 경향을 살펴보았으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공학생들의 경우 차별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비전공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주방 남향형이나 자유평면형 같은 새로운 경향의 디자인에 대하여 선호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5. 차별화 아파트의 공간계획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미래의 차별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하에 디자인되어야 한다.

1) 공간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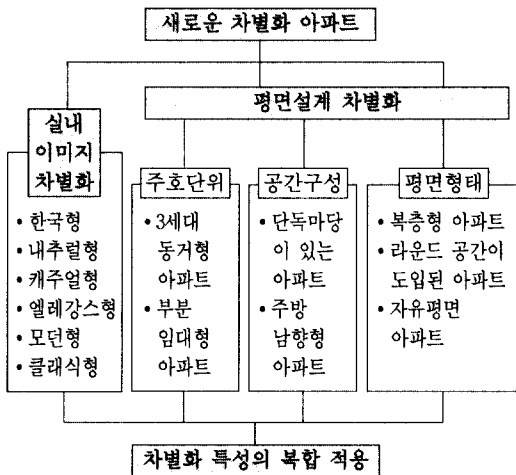
(1) 거주자들의 다양한 선호도 및 요구 반영

근미래에 계획되는 차별화 아파트는 선호도나 요

구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범위만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거주자들의 선호나 요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의 거주자가 선호하는 유형은 20% 정도의 비율을 시공하여 분양하고, 50%의 선호율을 보인 범위는 50%의 비율 정도를 계획하고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특성을 지닌 차별화된 아파트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새로운 차별화 아파트의 모색: 차별화 특성의 복합 적용

현재 각 건설회사에서 계획하거나 분양 중인 대부분의 차별화 아파트는 1가지 정도의 차별성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미래에는 지금의 차별화 아파트 계획보다 더 발전된 아파트 계획이 요구될 것이며 또 공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차별화 특성을 2가지 이상 복합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실내이미지의 차별화와 평면설계의 차별화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며, 평면설계의 차별화 중 공간구성의 차별화와 평면 형태의 차별화가 함께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러



<그림 7> 새로운 차별화 아파트의 가능성 모색

한 차별화 특성의 복합적인 적용은 우리나라 아파트 실내공간의 획일화된 틀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계획의 대안

이상과 같은 공간계획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한 공간계획의 대안은 무수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를 전부 다룰 수는 없으므로 그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요구를 선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표 6> 전용면적 32.5평(107.25m²)의 평면을 계획하였으며, 실내이미지는 소비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대안 1(계단형)

복층형 아파트와 단독마당을 혼합하여 적용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서, 복층형 아파트에 대한 요구에서 위층을 사적인 공간으로, 아래층을 공적인 공간으로 분리한 점은 높은 선호경향을 보였으나,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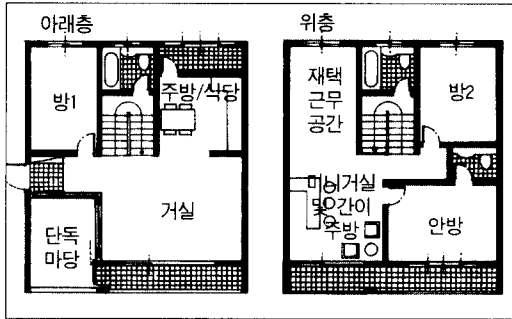
<표 6> 공간 계획의 기준

평면의 형태 및 공간의 구성	복층형+단독마당형
전용면적	32.5평형
실의 수	3실형
근미래에 요구되는 공간	재택근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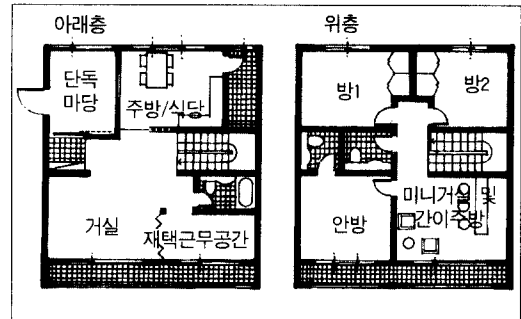
친 분리로 위층에 방이 밀집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오히려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1을 아래층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아래층은 단독마당, 거실, 주방 및 식당, 방 1로 구성하여 공적인 기능이 주를 이루도록 하면서 방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배치되도록 방1을 배치하고, 위층은 재택근무공간, 방 2 안방, 안방욕실, 미니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하여 사적인 공간이 주를 이루면서도 미니거실과 같은 공적인 공간을 두고 재택근무공간과 미니거실이 근접하여 배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욕실이 너무 많은 점(3개: 아래층 1개, 위층



〈그림 8〉 공간계획의 대안 1



〈그림 9〉 공간계획의 대안 2

1개, 안방 1개)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아래층과 위층의 중간인 계단참 부분에 욕실을 두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단독마당의 면적이 적다는 의견과 다용도실에 근접하여 배치된 점에 대한 불만을 수정하여 다용도실은 주방 근처로 배치시키고, 현관과 발코니에 인접한 부분에 단독마당을 두었으며 남향에 배치하여 실내정원의 기능을 살리고, 단독마당 공간을 유리로 처리하여 주방과 거실에서도 단독마당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대안 2(계단형)

이 계획의 특징은 현관에서 실내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단독마당을 지나감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마당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며 이 곳을 운동실과 같은 곳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렸다.

또한 단독마당이 아래층의 북쪽에 배치되어 다소 어두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기에 면한 창을 설치하고 실내에 면한 부분은 유리로 처리하여 채광과 통풍을 배려하였으며 주방 및 식당공간과 거실공간에서도 창을 통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만족시키고 있다.

한편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서 주방 및 식당공간이 보이는 것을 기피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방 및 식당공간에 빈지문을 계획하였다.

아래층에는 거실, 주방, 재택근무공간, 단독마당 등의 주로 공적인 공간을 배치하였고 거실과 재택근무공간을 근접하게 배치하여 집안에서의 업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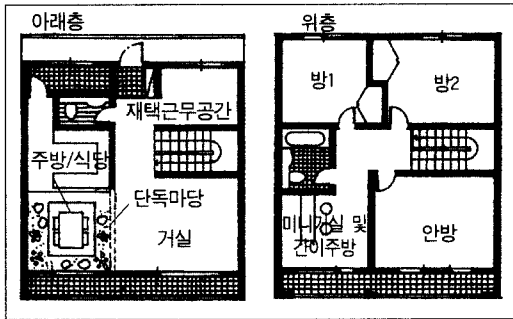
가벼운 meeting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으며, 위층에는 각각의 방들과 간이주방 및 미니거실 등을 배치하여 사적인 공간만을 배치하면서 가족의 단란을 위한 미니거실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분리를 선호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계획이다. 이 평면의 경우, 욕실을 3개 구획하였고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게 하였다. 또한 거실이나 안방의 면적을 줄이고 욕실, 단독마당, 주방의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거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3) 대안 3(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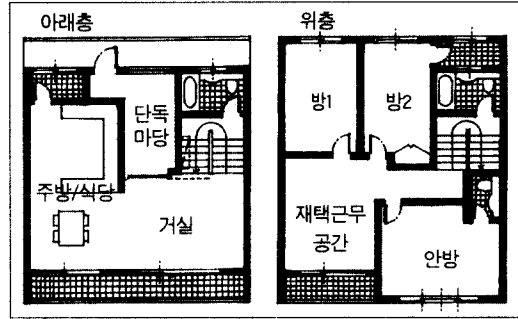
이 계획의 특징은 단독마당을 발코니와 인접한 곳에 배치되 분리하였으며 식당공간을 단독마당으로 융합한 형태로서, 주방공간에서 실내정원과 돌담을 거쳐 카페트가 깔려진 식당으로 진입함으로써 자연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보다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느끼고 단독마당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실내폭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층에는 주방 및 식당, 거실, 재택근무공간, 욕실(세면기와 변기 설치)을 배치하였는데 주로 공적인 공간만이 배치되었으며 재택근무공간이 거실과 주방 및 식당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거주자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단독마당을 겸한 식당공간을 남향에 배치함으로써 주부가 낮동안에 밝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위층에는 안방, 방 1, 방 2와 욕



<그림 10> 공간계획의 대안3



<그림 11> 공간계획의 대안 4

조가 설치된 욕실과 간이주방을 배치하였으며 대신 안방의 욕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공적인 공간인 아래층에서는 간단한 세면기능만을 가능하게 하고 사적인 공간인 위층에서는 샤워나 목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편안한 휴식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래층의 주방공간을 밀폐시키지 않고 오픈시키는 형식을 취하면서 미관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싱크대나 가열대는 안쪽으로 배치하도록 의도하였다.

(4) 대안 4(복도형)

복도형의 경우로서 현관과 단독마당을 연결시킨 형태이다. 현관입구를 따라 화단을 배치시키고 실내 현관입구를 미닫이문으로 설치하여 전통주택의 정서를 살리도록 하였다.

아래층에는 주방 및 식당공간과 거실, 단독마당만을 배치하였는데 남향에는 거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밝은 공적공간을 형성하고 단독마당이 현관을 따라 위치하면서 북쪽에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많은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복도에 면한 창을 쪼갠 유리로 처리하여 빛을 흡수하면서 외부에서는 실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현관의 신발장은 실내계단의 밑부분을 활용하여 불박이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층에는 공적인 기능을, 위층에는 사적인 기능을 의도하였는데 위층에는 안방, 방1, 방2 안방의 욕실과 재택근무공간을 계획하였다.

욕실의 경우, 대안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단참 부분에 욕실을 배치시켰는데 이는 욕실면적을 줄이

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모두 접근하기 쉬운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이며 안방 욕실의 경우,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간단한 세면기능과 샤워가 가능하도록 의도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설문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실내공간의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후 새로운 차별화를 모색하는 공간계획안을 제안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아파트 실내공간이 다른 사람의 아파트 실내공간과 다르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차별화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미래의 거주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차별화 계획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별화 아파트의 규모는 30-35평형, 실의 수는 3실형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기본공간 외에 재택근무공간을 원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아파트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점유하지 않은 선호도라 하여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미래의 차별화 아파트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적은 수요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전체적인 선호에 있어서 실내이미지 선택형 아파트, 단독마당이 있는 아파트, 복층형 아파트 순

으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근미래의 거주자들이 기능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갖추면서 단독주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적은 수요의 요구라 하더라도 무시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차별화 아파트의 공간계획에는 근미래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차별화 계획 특성을 수렴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였고, 새로운 차별화의 방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차별화 특성을 복합하여 적용해 보았으며 이는 큰 무리없이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공간계획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겠지만 건설회사들은 미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실내공간의 차별화가 보다 활성화되고 거주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차별화 아이디어의 발상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파트 차별화 계획을 실내공간에 한정하여 살펴 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 및 실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및 외부단지 계획, 공동공간 계획, 시설 및 설비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2003년의 주거문화를 내다본다, 현대주택(1993. 11).
- 2) 21세기 첨단주택, 현대주택(1994.1).
- 3) 강병근(1986.10), 한국형 3세대 주택 개발방안, 현대주택.
- 4) 김영주(1992), 아파트 거주자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연구회(1997),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도서출판 발언.
- 6) 대한주택공사연구소(1995), 새로운 주택형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주택형 사례조사 및 평가.
- 7) 박경순(1995), 새로운 주거형태도입으로 주거문화 바뀐다, 현대주택.
- 8) 손영미(1993), 아파트 평면형식의 다양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안은경(1993), 획일화된 아파트 유형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오봉석(1992), 집합주택 단위평면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단지 아파트에 있어서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 주택정보(1987.6).